

순천시,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 재개장 이후 운영 순항

통합 발권 할인·갈대열차 운행·요금제 다양화 기존 운영기간 평균탑승률에 비해 2.4배 증가

순천시(시장 허석)가 지난 3월 스카이큐브를 무상인수 후 운영한 결과,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수익구조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26일 스카이큐브 재개장 이후 8월말까지 국가정원 입장객(54만5천537명) 대비 스카이큐브 탑승객(7만2천920명) 비율은

12.7%로, 기존 운영기간 평균 탑승률(5.3%)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시는 스카이큐브 운행재개와 함께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 갈대열차, 순천만습지를 연계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통합발권제를 도입하고, 문학관역에서 순천만 습지까지의 갈대탐방로에 친환경 전기 갈

대열차를 운행해 관광객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구간 편의시설 확충과 홍보에도 공을 들여왔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 조례 개정으로 무료입장자 및 1년권 소지자, 관광지 통합입장권소지자가 국가정원 입구에서 매표시 할인을 적용하는 선발권 할인 제도를 실시한 이후 입장객 대비 탑승률은 16.1%로 평년대비 3배 증가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에서 통합권을 구입

곡성군 희망복지기동서비스, 신규 추가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협력해 생활 안전점검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희망복지기동서비스에 생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신규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희망복지기동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읍면 오지마을을 방문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곡성군의 민관협력복지사업이다. 지난 9일 읍면 서봉마을에서 진행된 희망복지기동서비스에서는 생활안전 점검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담양소방서 '찾아가는 119 생활안전순찰대'와 협력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기본의료 서비스, 구급의약품 멘토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 불편 해소 서비스(방역 지원, 재난 피해자 사후 지원)와 별집 제거, 잠금장치 개방 등 119 생활안전 활동도 진행한다. 지난 9일 생활안전순찰대원들은 읍면 서봉마을 12가구를 방문해 가정 곳곳에 안전 손잡이를 달아줬다.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주택 화재 진단, 생활 속 위험 및 불편요소 제거, 혈압 및 혈당 측정, 활력징후 측정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했다. 필요한 가정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정상 작동 확인 및 교체, 노후콘센트 교체 서비스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곡성군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과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제거한다. 주택 화재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진단(전기, 화기 사용, 주택용 소방시설), 맞춤형 생활의료 서비

곡성군은 위험 예방 생활안전점검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민관협력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선섭 기자

여수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0원)인 가구가 해당되며,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원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의 고소득,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SNS,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생계급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수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석 기자



광양노인복지관은 최근 웰다잉 인식을 위한 자아통합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 참여자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생명을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으로 살도록 성찰하는 교육으로 '2021년 전남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다. /광양군 제공

광양노인복지관 자아통합프로그램 상담 진행

광양노인복지관은 지난 2일과 9일(총 2회) 웰다잉 인식을 위한 자아통합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 참여자 17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생명을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으로 살도록 성찰하는 교육으로 '2021년 전남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자아통합 이해교육(30회/주1회) ▲개인별 전문가 심리상담(총 49회) ▲웃음치료 집단프로그램(19회) ▲꽃차만들기 체험활동(1회) ▲사전의료의향서 교육(1회) ▲웰다잉의 법적 이슈 및 유언장 작성(1회) ▲웰다잉 인식 교육(4회)을 실시했다.

상담 1회차(9월 2일)에는 지난날의 집에 대한 회상과 마음 내려놓기

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고, 2회차(9월 9일)에는 자신의 변화를 위한 다짐으로 변화를 위한 행동 과제를 정하고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회복된 자아 경험을 바탕으로 쫓겨난 의식과 자신의 변화를 위한 희망 메시지를 표현하고 자아 통합적 심리 구조를 완성하며 마무리했다. /오승택 기자

구례군, 2022년 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급변하는 환경과 정부 정책지조 변화에 대응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최근 2022년 신규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 각 부서별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새롭게 변화된 정책 환경과 내년도 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한 분야별 세부 전략을 논의하고, 18개 실과소원에서 발굴한 113건의 신규시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따져 2022년 본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등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 아래, 내년도에 지속 추진하는 438개의 주요 사업을 확인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방향을 재검토했다.

주목할 만한 신규시책사업으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주요관광지 AR·VR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과 찾아가는 여권배달 서비스, 관내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미세먼진 신호등 설치, 4계절 꽃피는 구례를 만들기 위한 십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례군의 모든 공직자들은 한국판 뉴딜 2.0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움직임과 발맞추어 실질적으로 군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와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선식 기자

